



■ 충북인재양성재단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 성명서(2020.4.27.)

대입실적 순으로 고교에 1.5억원씩 주겠다는 충북인재양성재단, 명백한 ‘학력·학벌 차별행위’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력·학벌 차별 물론이고 과도한 대입경쟁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임을 확인함.
-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난 4월 14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충북 소재 7~9개 고교를 선정해 1개교당 최대 1.5억원을 진로·진학교육 및 학력향상 등의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함.
- ▲ 위 사업은 주요대학성과, 수능성적, 수능모의평가 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를 선정하고 해당 고교가 소위 명문대 진학실적을 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벌에 따른 차별은 물론이고 입시경쟁을 조장하고 있음.
- ▲ 국가인권위·교육부·시도교육청까지 이같은 ‘특정대학과 학과를 우대하고 대입경쟁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일부 재단의 행위를 명확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지사가 이사장인 지자체 산하 재단으로 볼 수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노골적으로 학력·학벌 차별과 과도한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임.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해당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충북도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촉구하며, 향후 국가인권위에 이 문제에 대한 진정을 요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추진 중인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학력·학벌 차별은 물론이고 과도한 대입경쟁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난 4월 14일에 사업설명회를 열어 충북 소재의 고교 7~9개교를 선정해 1개교당 최대 1.5억원을 진로·진학교육 및 학력향상 등의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개요와 지원고교 선정방식에 노골적인 학력·학벌 차별 및 과도한 대입 경쟁 유발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이 밝힌 ‘선정방법 및 절차’를 보면 정량평가 70점에 해당하는 평가요소가 ‘주요대학진학, 수능성적, 수능모의평가 성적’입니다.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30점을 부여하지만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정량평가 70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난해 진학실적, 수능성적을 토대로 대입 실적을 낼 수 있는 고교를 걸러내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1]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선발방식

V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방법 : 정량평가(70점) + 정성평가(30점) ⇒ 고득점순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평가요소

- 1차 정량평가(70점) : ①주요대학진학②수능성적③수능모의평가 성적
- ※ 20개교 내외 선정

- 2차 정성평가(30점) : ①사업적합성②사업우수성③실현가능성
- 교무부장 또는 사업 담당자 사업계획 설명(5분), 심사위원 질의(5분)

지원 고교가 제출해야 하는 서식에서도 학력·학벌 차별 요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량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주요대학의 면면을 볼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 서열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의·치·한의대 입학 실적도 포함하고 있어 학과 서열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림2] 정량평가 기준에 반영된 주요대학 진학현황

서식 2 <주요대학 진학 현황, 수능성적, 수능모의평가 성적>

최근 2년간 주요대학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 분	주요대학 진학 현황		고3학생수	비 고
	대학교명	등록(진학)자수		
2020학년도	계			
2019학년도	계			

※ ① '타임즈고등교육' 및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발표한 2020 세계대학순위(평가)에서 1~500위에 선정된 대학 및 국내 의·치·한위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

(국내) 가톨릭대,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광주과학기술원,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양대

② 당해 연도 2. 28.까지 등록자에 한함('19년, '20년)

③ 허위 실적 제출시, 사업비 회수 조치 / 졸업생 제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은 잇달아 특정 대학의 진학실적을 공개하는 행위와 진학실적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재단의 사업을 차별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인권위는 68개 군 단위 장학재단 중 38개 장학재단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대학 등 주요 대학 합격생에 한해서 소위 '명문대 진학'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지역 인재 양성 등의 명목으로 특정 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의 이같은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대입 경쟁의 결과에 의해 특정 학교에 재정일 지원 하겠다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사업 역시 명백한 학벌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그림3] 출신 대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입장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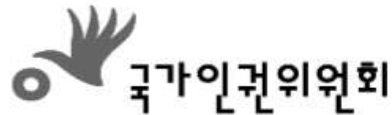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20. 2. 11. | 보도일시: 2020. 2. 11. | 02-2125-9870 | 홍보협력과장 윤설아
담당부서: 차별시정국 차별시정총괄과장 서수정(02-2125-9940) | 담당: 이은제 조사관(02-2125-9941)

인권위,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해야” -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관련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도 ○○○장학회 등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에게 특정 대학교와 학과 진학(재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 진정인은 전국 군(郡) 단위 38개 장학회가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 의예과 등 이른바 명문대·특정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러 장학사업 중 일부이기는 하나 34개 피진정장학회(진정사건 조사 중 장학금 지급기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4개 장학회 제외)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인재양성 등의 명목으로 특정 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또한 고교의 대입진학실적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비교육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인권위는 물론이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도 금지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입시가 끝나면 중 고교는 물론이고 학원가까지 나서서 고입실적과 대입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합격현수막을 거는 행위에 대해 인권위의 해석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합격현수막이 학벌차별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광고수단이니 자제하라는 입장의 성명을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에 해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도 상급학교 입시설적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벌차별을 부추기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합격현수막을 거는 것도 금지시키는 상황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입시설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그 실적에 순위를 매겨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교육적인 발상입니다.

[그림4]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위 성명



서울 중구 무교로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1층 | 전화 02 2125 9673 | 팩스 02 2125 0920 | 언론담당 이재진 (jlee0420@nhrc.go.kr)

보도자료 | 2015년 1월 27일 | 담당: 김화숙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팀 전화 02-2125-964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하여 특정학교의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학별로 인한 차별 문화 조성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인권위는 2012년 10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별 차별문화 조성에 대해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각 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전국의 중등학교장들에게는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이사장이며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함께 출연한 기금과 뜻있는 지역 인사들의 기탁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즉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할 재단이 학력·학별 차별과 과도한 입시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충북도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해당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그간 인권위가 보여준 교육 관련 해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는 등 다시는 이같은 차별적 행위가 지자체 및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 4. 2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